



부활 제4주일(5월 11일)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 10,27-30)



착한 목자

작가는 착한 목자 그리스도의 전통을 따라 목가적인 풍경과 함께 착한 목자 예수님을 그렸다. 예수님께서서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푸른색 긴 튜닉을 입고, 붉은색 속옷을 입으셨다. 푸른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사랑을 상징하기에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착한 목자가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왼손에 목자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쥐고, 오른손으로 양의 네 다리를 꼭 잡고 있으며, 잃었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강렬한 눈빛으로 사람들에게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세상에 오신 착한 목자임을 굳엄하게 선언하고 계신다.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세상 어떤 권력과 위협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앗아갈 수 없도록 약속하신다. 예수님의 발 밑에는 가시나무가 있어 착한 목자의 길이 가시밭길을 암시하고 있다.

작가 필리프 드 샹파뉴 | 1650-60년, 캔버스에 유채, 154x95cm, 투르 미술관, 프랑스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50번 “주님은 나의 목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부활의 기쁨 속에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시며, 저희 마음을 열어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하소서. 이 모임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27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28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29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30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따르고 있는지 성찰해 봅시다.
(요한 10,27 참조)

나는 주님 안에서 어떤 신뢰와 평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갈 때, 어떤 신뢰와 평화를 경험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요한 10,28 참조)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요한 10,27)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착한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따르고 있을까요?

세상은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개인주의 확산 등으로 많은 이들이 불안과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과 연대를 선택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 외로운 어르신들, 불안한 청년들...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입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이면, 주님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의 목소리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소공동체가 착한 목자의 길을 따르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써보기 [요한 10장 27-28절]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함께하기

| 진행자 | : 우리 소공동체가 희년을 살아가며 실천할 사항들을 정해 봅시다.

◀ 조부모와 노인 공경 ▶ 5월 30일 - 6월 1일 가정들, 조부모들, 노인들의 희년에 따라 공동체와 함께

- ① 우리 공동체(구역, 소공동체) 속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구성원들과 함께 식사 대접하기

내 삶 속에서

- ① 우리 이웃 중 홀로 생활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안부전화 드리기
- ② 조부모를 위하여 묵주기도 바치기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34번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